

원 본	세이교 신문	발행일	2013-11-16		면(面)		1,3	
제 목	세계종교의 조건을 말하다	내 용	클라크 스트랜드 교수 인터뷰					
번역자	Y-TRANS	번역레벨	완직역	쫄직역	어중간	쫄의역	완의역	
						○		

11.18 창립의 날 기념 인터뷰

세계종교의 조건을 말하다

창가학회의 2014 년도 테마가 <세계광포신시대 개막의 해>로 결정됐다.

세계의 평화 문화 교육에 기여해가는 SGI 에 대한 기대는 한층 높아져있다.

종교가 세계로 퍼지고 차이를 극복한 평화와 문화의 다양한 꽃을 피우기 위한 근원이 되는

자질과 조건은 무엇인가? 세계광포의 새로운 출범에 맞춰 자질과 조건을 올바르게 검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한 검증에 세계의 종교역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졌으며 창가학회 삼대회장의 정신과 실천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미국의 저명한 종교 저널리스트, 클라크 스트랜드씨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① 종교의 진정한 부흥을 촉구한 도다 제 2 대회장의 ‘부처란 생명이다’라는 자각과

② 그것을 ‘인간혁명’의 사상과 행동으로 보편화 하여 세계에 소개한 이케다 SGI 회장의 길을 따르며

세계종교로 발전을 거듭 성취해 나가는 창가학회의 미래를 전망했다.

(인터뷰 담당 : 본지객원편집위원 요코타 마사오, ▶ 로 표시)

▶ 창가학회의 전후 재건의 원점이 된 세계 광포와 평화를 향한 원점이 된 도다 제 2 대회장의 옥중 ‘부처는 생명이다’라는 자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스트랜드 : 현대 종교에서 돌출된 최대 과제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종교는 왜 개인의 생명력을 개발하고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잊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한가지는 종교의 비대화(肥大化)입니다.

종교집단이 비대화되어 종교의 지도자들이 개인의 생명을 열어가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개혁하기 보다는 집단을 어떻게 컨트롤할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권위화의 경증

도다 제 2 대 회장의 ‘부처란 생명이다’라는 깨달음은 본래의 사명을 잊고 거대화, 권위화된 종교에 심각한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은 그 자각은 옥중에서 단순히 명상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회 조직도 그리고 조직을 유지하는 사업도 모두 모두 망할 것이라는 고경에 처해 냉철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생겨난 자각입니다. 일반 종교가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단순한 관념의 유희와는 천지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그 자각은 종교의 부흥뿐만 아니라 사회 그 자체의 부흥도 촉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스트랜드 : 더 깊게는 고대로부터 인류가 육성시켜 온 생명력의 회귀를 지향한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지요?

그 생명력이란 인간이 대지에 뿌리를 댄고 살며 한사람 한사람이 하루하루 직면하는 과제에 몸으로 체험하며 지혜를 연마하면서 어려움에 맞서 살아가는 가운데 개발되어 깊어진 것입니다.

한편, 현대인은 기계나 문명에 의존해 스스로의 힘으로 자연에 맞서는 능력을 잃고 진정한 생명의 힘을 쇠퇴시켜버렸습니다.

그 쇠퇴는 인간과 인간의 마음의 교류가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최악의 결과가 전쟁인 것입니다.

도다회장은 그러한 역사를 예리하게 응시하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모두 종교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현대사회의 심각한 과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케다 SGI 회장도 10 대 후반, 전후의 폐허와 혼란속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다회장의 사상과 인격을 접하고 크게 계발되어 그 감동을 즉흥시로 나타내어 '우리 땅에서 솟아오르려 하는가' 라는 결의로 나타내셨습니다.

폐허의 땅에 생명의 고동을 높이 솟구쳐가는 초목의 모습에서 발상한 것입니다.

도다회장은 그 말에 민중 구제에 대한 무한한 영지와 용기를 칭찬하시며 대지에서 춤추며 나온 '지용의 보살'의 이미지와 오버랩하여 공감하셨습니다.

스트랜드 : 진정한 사제의 관계에 대해서 그 최초의 만남에 모든 것이 응결되어 완성된 것입니다. 그 후, 한장한장 얇은 종이를 벗기듯 다양한 진실이 사람들 앞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10 대의 감수성 높은 청년이었던 SGI 회장이 전쟁과 전후를 통해 드러낸 정치세력, 그리고 종교세력의 배신에 매우 큰 실망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핵무기의 사용에 상징되는 극도의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해 매우 큰 분노를 느꼈던 것일까요?

아니면 국가와 종교의 배신적 행위와 싸워 나가신 도다회장의 사상과 인격에 매우 깊이 공감했기 때문일까요? 연구하면 할수록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적인 힘”에 눈뜨게 하다

▶ 스트랜드씨는 도다회장이 불법을 부흥시키고 이케다 SGI 회장이 보편화시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스트랜드 : 중요한 것은 이케다 SGI 회장이 도다회장의 '인간혁명'의 사상과 실천을 보편화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불법의 보편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가.

그것은 '인간혁명'의 실천을 위해서는 인간자신의 고양을 촉구하는 '내적인 힘'이 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힘'이 세대나 민족의 차이를 초월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공유하는 정신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자각할 때, 서로간의 차이를 둘러싼 모든 편견을 타파하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동시에 편견을 타파하는 진정한 목적은 차이를 초월한 윤리의 고양(高揚)이 아닙니다.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불행에 맞서 싸우고, 모든 생명존엄에 근본을 둔 인권세기의 개혁을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일에 있습니다.

어쨌든 스승에게서 제자에게 전해지는 정신의 바통을 전해가는 노작업 속에 생명의 무한대 에너지가 솟아 나옵니다.

현대 종교에서 결핍된 것이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 창가학회의 '손수 만든 조직'이라는 특징에도 깊은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스트랜드 : 예전에 오사카를 방문했을 때, 회원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간사이는 선생님께서 손수 만드신 조직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간혁명'의 테마는 개인의 변혁을 넘어 사회의 변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은 변화된 개인이 자기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손을 뻗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손수'의 의미는 그런 것이라고 나는 이해했습니다.

신앙을 통해 체득한 확신, 에너지, 행복감. 그러한 청정한 생명이 개인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용솟음쳐 나와 눈앞에 있는 사람의 생명속으로 흘러들어 새로운 계발(啓發)의 근원이 됩니다.

그곳에 광선유포에 있어서 진정한 '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SGI 회장과 간사이의 회원들의 교류 모습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손수 만든 조직'의 에너지가 약동하는 곳이야말로 창가학회 전통의 좌담회입니다.

그 모습에 나는 아득한 시간, 고대 사람들이 모닥불을 둘러싸고 한사람 한사람이 눈빛을 교환하며 서로의 생각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가능했던 원시 공동체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인류의 영지도 문화도 바로 이런 밝고 따뜻한 모닥불을 둘러싼 모임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리성과 개방성과의 조화에 성공

▶ 이러한 인간의 계발과 공감에 뿌리를 둔 민중의 평등 연대에 대해 닛켄중이 집착하고 있는 권위와 지배의 칼날은 창가학회의 혼의 독립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스트랜드 : 종문은 학회에 파문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종문이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으로부터 이탈하는 선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파문선고로 인해 니치렌 불법은 새로운 종교로 출발을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새로운 종교란 종교의 부흥, 다시 말해 재발견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흥과 재발견은 항상 종교의 원리성과 개방성의 정확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긴장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종교는 시대를 초월하는 불변의 명확한 가치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명확한 가치관을 유지해야만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종교에 헌신하게 되고, 그 사상을 다음 세대로 전하고자 하는 높은 정신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지녀야 할 원리성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동시에 종교는 항상 새로운 요소를 받아들이는 개방성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교의 역사에서 원리성은 이름뿐인 극간의 폐쇄성에 눌러, 원리성과는 떨어져 부분별한 개방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어느 쪽이던 한쪽으로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원리성에 기반을 두고 혁신적이며 개방적인 종교운동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까지 생각되어 왔습니다.

창가학회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조화시켜 훌륭하게 성공했습니다.

그 요인은 종교적인 원리를 내부의 구속이나 컨트롤을 위한 폐쇄된 힘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인류 공헌을 위한 지혜와 개방을 위한 힘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폐쇄주의를 넘어 부단한 도전!

▶ 닛켄종은 '반면교사(反面教師)'적 존재였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스트랜드 : 종문이 의도적으로 학회 발전에 벽이 되고 장애가 되었음은 확실하지요.

그러나 광선유포의 흐름이 폐쇄성으로 인해 굳어진 장애의 바위에 의해 막히는 일 없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량(水量)을 늘려 장애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도전이 바로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이며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극단적 원리주의에 빠져버린 종교세력과의 투쟁이란 무엇인가!

항상 종교가 가져야 할 자세란 무엇인가!

빠져서는 안될 폐단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투쟁은 창가학회에 있어 커다란 행운이며 종교의 부흥과 재발견에 귀중한 양식이 된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창가학회의 세계종교를 향한 출발을 진지하게 추진하는 속에서 종문과 결별이라는 최대의 행운을 얻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종교에 있어서 원리성과 개방성의 밸런스는 글로벌화된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요?

스트랜드 : 글로벌사회는 무한 개방성을 기본으로 한 사회입니다. 인터넷 하나만 봐도 그 점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폐쇄주의, 비밀주의의 성격을 지닌 종래의 종교에 있어서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방성 속에서 사람들이 정보의 홍수에 넘쳐 사물의 본질을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시대나 문화의 차이를 초월해 보편적인 인간관을 바르게 응시하여 계승해 가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원리성과 개방성의 균형을 지닌 종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SGI 회장이 일관하여 불법의 생명존엄 사상에 기반을 두고 전개하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 폐절', '창조성의 개발을 위한 교육', '진정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의 역할' 등 현대사회의 제일 중요한 과제에 대한 제언을 계속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성의 계발 사상과 행동은 어디까지나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통해 심화시키고 넓혀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대화의 수단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가학회의 '손수 만들어가는'운동의 진가가 지금이야 말로 발휘되는 때입니다. <끝>

11・18「創立の日」記念インタビュー

世界宗教の条件を語る

「創世者の明のデマゴグが『世界底層時代』開幕の年」と決定して、
世界に先駆けてSIGOI（創世学会・シタシヨナ）の公開待は、一段と高まってくる。

では、宗教が世界へ広がり、差別的・排他的文化の多様な人種・文化・人種を包摂し、条件を何かに縛る世界への新たな飛立ちにあたり、それを正しく機軸と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ぬことが重要となる。

そこで、創世の宗教の歴史に詳しく、創世者の代念長（のちの創世者）の精神を「実践深い理を」持つアメリカ人著名な宗教

ジャーナリスト、クラーク・ストランド氏にインタビューした。

氏は、①宗教の眞の再生を促した戸田第9代会長の「位とは生命なり」との覺知と、②それを「人間革命」の思想と行動へと普遍化し、世界に紹介した池田SGC会長の足跡を踏まえながら、世界宗教へと発展を遂げる創価学会の未來を展望した。（聞き手＝本紙客員編集委員・横田政夫）

アメリカの宗教ジャーナリスト

クラーク・ストランド氏



生命なり」との
ように、
ますか。
ンド氏 現代
た最大の課
題は、人生
の意味と価
値はどこに
あるのか、
との問いに
よいか。
一つは、宗教の肥大

[illegible]

ありがな。観念の遊。
 夢は天地雲霧の差が
 ぬける。

その覚知は、宗教の再生のみならず、藝術の新しい、真生命の力をも裏返させてしまふのとなりまし。

スタンロド氏、人間の心と交流し、希望が育まれた生命の力をも得たのです。その最悪の暗黒こそが、戦々たる、

その生命力とは、人史を鋭く見抜いたこと、その謂が、人間が大地に根を張って、生きている一人が、日家ののみに向けられ、

一方、現代は機械や文明に頼り、自分の

「人生の意味とは何か」に答えた創価学会

深められたものなので

3面に続く

